

안양 마을 축제 “조각찾기부터 함께해서 즐거운 이야기까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회복 운동이다.

안양마을축제를 처음 기획한 2012년은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하나의 큰 화두였다. 서울은 1000개의 마을 만들기를 하겠다, 수원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 참여와 소통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마을르네상스센터를 통해 오래된 마을 환경개선이나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안양의 경우에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조례 제정부터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자는 내용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안양에서는 그동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관양2동, 국토부 지원사업),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등 굵직한 지역 공동체 운동이 진행돼 왔다. 지금도 매년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 소 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6층

전 화 031-8045-5681

팩 스 031-8045-2847

이메일 greenanyang21@hanmail.net



이름은 다르지만 자원봉사나 생협운동, 마을기업과 재래시장 프로젝트부터 화단 가꾸기,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 공동체 운동이 마을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을 만들기를 잘하기 위한 주민자치 강화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을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동체와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활동가와 전문가를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안양에서 마을만들기를 더 잘하려면, 현재의 모습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래서 안양의 마을만들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모아보자는 데 합의했고, 지금까지 안양에서 이뤄졌던 크고 작은 경험들을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향후 안양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자고 다짐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크고 작은 사례들을 모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출발점을 삼

자고 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제1회 안양마을축제 '안양마을, 흩어진 조각을 찾아라' 였다.

사업내용

제1회 안양 마을, 흩어진 조각을 찾아라

안양마을의 조각을 찾아보기로 한 1회 축제 때, 안양에서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 20여개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발굴했다. 마을동아리 활동이나, 마을신문, 예술과 결합된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았는데, 발굴하고 보니 지속되지 못한 아쉬움이 무엇보다 컸다.

안양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라 오래된 마을이 사라진 것도 원인이었고, 아파트가 많다보니 아파트 동아리 활동이



아주 잘되다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따라 이사를 해서 단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이 끊기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회 축제를 통해 마을에 대한 이해와 생각의 격차가 세대별로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그리고 마을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이 지방의제21 활동으로 연결된 점, 축제를 계기로 안양과 마을을 알기 위해 탐사대를 만들고 마을탐사를 시작하게 된 점 등은 지금 생각해도 벽찬 감동이다.

○ 세부내용

1) 일시: 2012. 11. 10 (토)

2) 사업구성

전시회: 마을만들기 사례 사진 전시

식전공연: 마을 음악 동아리 '소리마을', 안양2동 그린하모니합창단 공연

1부: 마을 만들기 사례 소개

안양YMCA - 등대생협 외 11건

2부: 토크콘서트 마을과 스토리텔링, 예술과 마을, 학습공동체로서의 마을



제2회 마을의 기억 꿈꾸는 내일

제2회 마을축제에서는 주로 탐사 활동에 관한 자료가 많이 나왔다. 특히 건축가의 눈에 비친 도로를 이고 사는 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탐사 활동에 대한 사진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마을을 보는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됐다는 내용, 조정의 측면에서 동네와 개인 주택에 심어진 나무들의 특징에 대한 소개, 안양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탐사활동을 짚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사례 등 마을을 보는 신선한 시각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 세부내용

1) 일시: 2013.11.22.~11.23

2) 사업구성

마을만들기 사례 전시, 현악4중주 공연,
1950년대~현재 안양의 모습 사진전.

1부 안양 마을기억 찾기 그리고 안양의 내일

최병렬: 안양마을과 골목길 이야기

김광남: 마을에서 역사를 보다

안양탐사팀: 안양 원도심 마을을 보는 다양한 시각

문홍빈: 사람이 보인다, 마을이 보인다

참여자 대화마당

2부 안양 골목탐사 : 안양8동 상록, 명학마을

제3회 톡톡톡! 안양 마을이야기

3회 마을축제는 내용적인 면에서 다채로웠다. 안양의 옛 기록을 모은 책 『내 고향 안양2동』의 발간과정,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안양의 대표적인 3개 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 마을만들기, 마을리더 교육을 통해 발굴된 주민들이 동네에 가서 공동체 활동을 엮어낸 달안동 마을축제이야기, 학습공동체로서의 마을 이야기, 수암천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마을들에 대한 발굴 사례, 탐사활동을 통해 안양 마을을 정리한 사례 등 안양 마을의 한 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격려하고 시너지를 얻는 시간이었다.

○ 세부내용

1) 일시: 2014.11.26

2) 사업구성

전시회: 마을이야기 사례 각 마을당 2개 판넬 전시

공연 : 부흥복지관 실버합창단, 달안 어린이집 원생들 노래와 율동 공연

1부 마을만들기 사례 발표 : 안양2동, 3개 복지관, 달안동 등 8개 사례

2부 대화마당



축제 참가자들이 안양의제의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

안양마을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얻은 게 참 많다. 우선 안양마을축제를 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기꺼이 함께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던 마을만들기 사례를 모으면서 흩어져 있던 활동가들이 만났고,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음 해에는 본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의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다.

또한 안양 마을 축제를 통해 매년 안양지역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마을이야기를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얻은 소중한 자산이다. 각 단위에서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공유의식이 확산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안양 마을만들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

안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지는 만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주민들이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의식이 생겨나고, 나와 이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에 대한 발전방향을 서로 모색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제1회 안양마을축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안양마을 탐사대의 경우, 탐사 활동 1년을 정리한 내용을 제2회 안양마을축제에서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마을과 골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안양문화예술재단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탐사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도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을 키우면서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지속적으로 안양의 마을 곳곳을 탐사하며 안양의 좋은 골목과 동네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

안양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례들을 활동에 직접 참여한 주민들이 스스로 소개하면서 활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마다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살피며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안양지역 전체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공무원과 단체, 전문가, 주민이 만나는 소통의 장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예술가, 의제, 주민 등 안양 각계 각층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시민이 함께 모여 안양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안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들의 조각 맞추기를 통해 어려움은 나누고 즐거움은 백배 즐기며 주민들과 기관이 서로 격려하는 장이 되고 있다.

마을탐사대의 동네이야기와 향후과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양마을축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안양탐사대였다. 안양 원 도심 골목 탐사를 통해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근대 문화유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안양에서 오래된 건물과 골목, 그리고 이야기를 다 소나마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가슴 떨리는 경험이다. 안양탐사대가 2년 동안의 동네탐사를 통해 안양 마을의 특징을 정리한 것을 보면 안양 마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다. 앞으로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마을마다의 특색을 살린 지명과 좀 더 체계적인 동네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네트워크 구성과 청년들의 참여 유도, 남은 과제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상에 있는 안양마을만들기네트워크를 어떻게 함께 가지고 갈 것인지, 청년들의 마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올해도 11월 말 경에 한 해의 마을만들기를 정리하고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는 제4회 안양마을축제를 진행하려 한다. 올해는 안양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어떤 주제의 마을축제가 될지 준비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설렌다.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지방의제21 활동의 즐거움이면서 안양마을축제의 매력 아닐까 싶다. 더불어 동네와 지역에 긍정의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내 삶터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데 한 발 다가서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